

금호셀-三井 마찰 “종식”

악화일로 MIBK, 자진 가격인상과 수요시장 회복으로 전환기

외국산 저가공세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던 MIBK시장이 三井측의 자진 가격인상과 수요시장 회복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장회복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당초 三井을 상대로 덤핑제소 방침을 통보했던 금호셀이 이를 사실상 철회기로 하는 등 기업간 시장안정 노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셀은 일본내 가격보다 톤당 400~500달러의 큰 차이를 보이며 대량 저가유입되고 있음을 지적, 三井측에 덤핑제소 방침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펼쳐왔으나 최근의 수요시장 회복과 함께 三井측이 자진해서 가격을 최고 Kg당 810원대까지 올림에 따라 사실상 덤핑제소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三井측의 Kg당 810원대 가격인상은 7월초 금호셀이 통보한 가격선과 똑같은 것으로 그동안의 덤핑마찰이 기업내부 조율로 거의 해소됐으며, 이후 금호셀의 일본 수출 문제에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MIBK 국내시장은 아세톤가격의 폭등으로 월간 350톤가량의 수입이 전면 중단된데다 MEK가격 상승에 따른 연동심리가 작용, 1/4분기 Kg당 730원에서 7월현재 810원대까지 오르는 뚜렷한 회복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량의 아세톤을 대체하면서부터 공급이 타이트한 양상을 초래, 이를 계기로 1/4분기에는 93년 기준 1년수입량의 70%인 27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환경문제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호추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3000톤이상 수출되는 등 이같은 요인이 국내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아세톤 국제가가 1/4분기 톤당 400 달러에서 7월현재는 내수가 500달러 수준을 넘는 600달러로 무려 200달러나 폭등함에 따라 남덕물산과 효성물산 등 수입상이 4~5월 계약시기를 놓치는 등 가격폭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하반기 MIBK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10월에는 하반기 정기보수 일정이 겹치면서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94년초 덤핑제소문제가 비화되면서 상당한 몸살을 앓아왔던 MIBK시장이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한 생산기업인 금호셀은 MIBK 시장이 92년 국내수요 1만3800톤에비해 93년에는 1만3300톤으로 4% 줄어 드는 추세속에서 일본물량마저 자국 내수가 (톤당1047달러)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700달러수준으로 대량 유입되자 94년초 덤핑제소 방침을 三井측에 통보한 바 있다.

<화학저널 1994/8/29>